로컬플러스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교통안전 교육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자라나는 꿈나무이자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남중동에 있는 이리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현장학습을 떠나는 대형버스를 상대로 안전운행 점검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중앙지구대는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출발 전 음주감지를 실시하고, 졸음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함과 동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소방서 위험물 운반 화물차 다음달 17일까지 집중단속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다음달 17일까지 위험물용기를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위험물 적재 운반 화물차에 대한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할 경우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단거리 이동이나 불편함을 이유로 위험물 용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용기 적재방법 준수 여부에 관한 집중 단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재경향우회 지역발전 협조 다짐

군산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재경군산시향우회(회장 조시영)는 지난 2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군산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다짐했다. 이 날 재경향우회와 함께 개최된 군산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군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재경향우회 부회장단, 군산시의회 의장 외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동신 시장은 주요현안 사항인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남북2축, 동서2축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내부개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적극 지원해 줄 것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당선자와 향우회원들에게 설명하며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민주노총 집회현장 취재기자 폭행

새만금산단 내 솔베이공장 신축현장서 플랜트노조 관계자들 집단적으로

취재 중인 기자를 협박하고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강력히 요구된다.

지난 23일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 내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회 집회현장을 취재하던 일간지 기자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새만금산업단지 내 솔베이공장 신축현장에서는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원들의 집회로 인한 공사방해로 입주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민주노총에 소속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2개월째 집회행위를 이어오면서 해당 업체 및 근로자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등 충돌을 빚어왔다.

이에 지역 언론사의 A기자는 집회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관계자들은 "왜 사진을 찍느냐"며 취재를 제지하며 5~6여명이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는 등 온갖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관계자들은 "왜 사진을 찍느냐"며 취재를 제지하며 5~6여명이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는 등 온갖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특정집단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새만금산단 입주업체들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단체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들이 정당화 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만 이뤄지면 여러 형태의 폭력·불법행위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도 뒷짐만 지고 있어 경찰에 대한 기업체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자신들의 이권에 부합하면 공권력도 무시한 채 집단행동을 일삼고 있는 특정단체에 대한 행태와 이권개입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취재기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와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군산경찰의 태도에 대해 언론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다수 언론인들 "이번 폭행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와 초법권적인 행태를 행사하고 있는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에 대한 해당기관의 진위 파악을 관심 깊게 지켜볼 것이다"며 "해당 관계자들을 관련 법규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익산 (주)하림 방문

'1社1제대군인채용' 기업마케팅 실시

"제대군인 리더십 · 조직관리 능력 · 책임감 갖춰" 강조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익산시 망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하림(주)(대표이사 이문용)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원활히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社1제대군인채용」을 위한 기업마케팅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제대군인들은 5~20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여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책임감과 전문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력으로 투철한 국가관가 애국심으로 무장된 마인드는 애사심으로 전환되어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하며 기업체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문용 하림(주) 대표이사는 제대군인의 채용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충분히 공감하며 채용 소요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각 기업마다 최소 1명의 제대군인이 채용되어 근무하는 「1社1제대군인채용」을 목표로 2016년도 전직지원 업무를 할 계획이다. 한편 하림(주)은 세계적인 육계 가공업체로 원종계의 사육 및 종란의 생산에서부터 부화, 사료생산, 사육, 가공 등 유통까지 각 단계를 수직 통합경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육가업계 중 국내 1위 업체이다. 수상경력으로는 2014 한국의 경영대상 마케팅 종합대상, 품질종합대상, 12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등 광주 관내에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1577-8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 시간여행축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는 '2016 군산 시간여행축제'에 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등 제한이 없으며, 분야는 축제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시설물 관련, 홍보 아이디어, 포스터·리플렛 등 축제 전반에 관해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타 공모전 수상 작품, 국내·외 발표된 아이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바 있는 아이디어의 경우 응모할 수 없다.

공모 시상금은 총 500만원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2개로 총 5개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6월 13일까지며, 공모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gametos@korea.kr)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시상은 최고 훈격만 실시하며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결과는 개별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만의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이니 만큼 많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여산 교창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가 24일 여산면 교창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 10명, 의용소방대 25명, 전기안전공사 등 총 37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을 주민 전체가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원거리 농촌마을의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안전마을 지정의 의미로 마을회관에 현판을 부착했다.

익산소방서는 교창마을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30대와 공동 구급함 1대를 설치하였으며, 4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승복 이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마을어르신 기초 건강 체크와 노후 전기시설 점검·교체,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 운영

군산시는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와 만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에 앞서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예비학교적 성격이다.

시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지난 5월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 어린이 38명과 청소년 46명을 선정해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어린이 의회 아카데미는 지난 21일에 이어 오는 28일 어린이 행복도시 알기,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는 지난 14일과 21일 청소년 권리와 사회참여활동, 의회 입법 활동의 이해 교육으로 진행됐다.

아카데미 종료 후에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각 30명을 선발 오는 6월부터 교육, 복지, 안전 분야별로 어린이와 청소년 자신에게 미치는 정책 사안을 스스로 논의하고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